

연구논문

코로나-19 시기 청년여성의 일자리 경험과 행복: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지은주** · 이민아***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의 일자리 경험이 청년여성의 행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일자리 경험과 행복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연구원이 2020년도에 수집한 제8차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배우자가 없는 청년여성이며 종속변수는 주관적 행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는 총 여섯 가지의 경우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하던 일을 그만둠 (2)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음 (3)하던 일의 노동시간이나 소득이 크게 줄었음 (4)변화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함 (5)계속 비취업 상태였음 (6)기타. 사회적 관계의 질은 (1)사회적 고립과 (2)관계 스트레스로 측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하던 일을 그만둔 여성과 지속적 비취업상태였던 여성이 일자리의 변화가 없었던 여성에 비해 행복수준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자리 경험과 행복의 관계에 사회적 관계의 질 중 관계 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가졌다. 하던 일을 그만둔 경우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경우, 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즉,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자리 변화가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일자리 변화가 청년여성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일자리의 부정적 변화와 낮은 사회적 관계의 질이 행복에 이 중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코로나-19, 행복, 일자리 경험, 사회적 관계, 청년여성

* 이 논문은 2022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ejuji13@gmail.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malee@cau.ac.kr), 교신저자.

I. 서론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지만 그 영향력은 개인의 생존 여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불평등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로도 작동했다. 코로나-19는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위협하였는데,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시기에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의 수준이 감소했음이 보고되었다(e.g. Hoffart et al. 2021; Pich et al. 2021). 그런데 주목할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정신건강과 행복의 위기가 집단에 따라 불평등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소득수준, 노동시장 내 위치, 생애주기 등의 조건에 따라 개인들이 겪은 어려움이 달랐고 이는 사회집단 간 정신건강, 행복, 안녕(well-being)의 격차를 유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복과 안녕의 위기를 겪은 집단은 다양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그중에서도 청년, 특히 청년여성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보건복지부(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청년세대의 우울은 전 연령대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우울과 우울 위험이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자살 문제 역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전체 자살 시도자 중 20대 여성의 비율은 9.8%였으나 2020년에는 20.4%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정신건강과 자살 위기에 비해서 주관적 안녕과 행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지만 코로나-19 시기에 청년여성들의 행복수준도 낮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 청년여성의 행복과 정신건강의 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의 위기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저학력자와 여성 등 특정집단에게 그 피해를 가중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여성들에게 더 심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2020)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종사하는 비공식 임금 노동자(informal economy workers)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42%로 남성(32%)보다 높게 집계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 실직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집단이 여성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시아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여성의 소득감소도 남성에 비해 큰 규모로 발생했다(Flor et al. 2022).

더불어 코로나-19는 여성집단 내 다른 연령층보다 청년층에게 더 큰 피해를 낳았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 청년 고용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젊은 여성에 대한 고용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ILO 2021).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중·장년층보다 더 심하였고 청년층 내에서도 여성학생들과 남성청년 졸업자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줄었다(함선유·이원진·김지원 2021). 특히 실직의 경우는 여성청년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같은 시기 실직의 영향을 받은 집단은 주로 여성청년이었고 남성청년들은 2020년 12월까지 실직에 대한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함선유 외 2021). 코로나-19 시기에 실직, 소득감소 등의 일자리의 위기는 여성에게 더 집중되었고 이것이 여성, 특히 청년여성의 정신건강이나 행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와 청년여성의 행복과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시기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일자리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 아니라(e.g. Diener & Seligman 2002; Lee 2016)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였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의 변화와 위축을 낳았다(Banerjee & Rai 2020).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로움, 우울, 불안 및 불면증 등 여러 가지 정서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음도 알려진 바 있다(Hoffar et al. 2021; Pieh et al. 2021). 코로나-19 시기 청년여성의 행복과 안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일자리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독립적인 영향뿐 아니라 둘 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는 행복에 독립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일자리 변화의 효과를 완충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부정적 생애사건(stressful life event)이나 스트레스 유발사건(social stressors)의 효과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조절됨을 보여주었다(e.g. 송리라·이민아 2016; Bacikova-Sleskova, et al. 2007). 이러한 연구는 실직 등 일자리의 부정적 변화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히려 관계의 영향력이 행복에 더욱 중요

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의해 발생한 실직, 이직, 소득감소 등의 일자리 변화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여성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여기에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1)코로나-19로 인해 비혼상태의 청년여성들이 겪은 일자리 변화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2)일자리 변화와 행복 간의 관계에 사회적 관계의 질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여성들이 겪은 일자리 변화와 그 영향을 드러내고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행복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일자리 변동 양상에 대해 개괄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코로나-19 시기 일자리 변동과 불평등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와 함께 실직, 소득 감소 등의 위기를 발생시켰다. 세계은행(World Bank 2020)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세계 GDP가 5.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OECD(2020)는 6~7.6%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각국의 국경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도 소비시장과 일자리에 타격을 주었다. 국제노동기구(ILO 2020)는 2020년 2분기의 전 세계 근로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1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령인구가 60만 명에 육박한 바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2022년 12월 기준 구직급여 수령인구는 50만 3천 명으로(고용노동부 2022) 2020년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이 수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에 실직과 소득감소의 영향을 받은 인구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일자리 위기가 집단별로 불평등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비자발적 실직, 무급휴업 강요, 소득감소를 겪었다(황선웅 2020).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동과 위험이 노동시장 내의 위치와 사회적 조건

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시기에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의 선행연구는 코로나-19위기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 내 지위와 전망에 더 큰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여성 침체(she-cession)’ 현상이라 요약된다(e.g. Albanesi & Kim 2021; Bluedorn et al. 2022). 국제노동기구(ILO 2020)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여성 고용은 2019년 대비 4.2% 감소해 남성의 3%보다 감소율이 훨씬 높았으며, 여성의 소득감소 역시 아시아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남성에 비해 큰 규모로 발생했다(Flor et al. 2022).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실업과 휴직을 더 많이 경험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휴직보다는 실직하는 경향이 있었다(Ham 2021).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일자리 위기와 젠더불평등은 청년세대 내에서도 발생했다. 2020년 10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6만 5천 명 감소하였는데(한국노동연구원 2020), 코로나-19로 인한 정규직 비율과 임금 감소의 폭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전문대졸자, 여성 졸업자의 경우에 더 심각했다(통계개발원 2022). 유럽의 경우, 젊은 여성들의 일자리 감소는 회복세가 더뎠으며, 일자리 부족은 특히 경력을 시작하려는 젊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Radu & Balan 2022). 또한 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의 경우는 특히 청년여성에게 큰 타격을 주었는데, 이는 청년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과 소규모 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함선유 외 2021).

현재 한국의 청년에게는 과거의 남성생계부양자 모형, 남성노동중심 생애과정이 약화되고, 여성도 노동중심 생애과정을 중요한 생애전망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은지 외 2020). 특히 이러한 변화는 청년여성에게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일례로 통계청(2019)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20대 여성 중 2.3%만이 직업보다는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년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등의 전통적 생애단계보다는 자신의 노동중심 생애를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업 등의 일자리 변화는 청년여성의 행복과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일자리 요인과 행복

셀리그만(Seligman 2002)은 행복을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삶의 활동에 참여

하며, 목적의식이나 의미를 찾는 삶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정의했다. 이는 행복이 순간의 단기적인 감정만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한 자기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동반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는 개인의 삶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일을 통해 생존을 위한 소득을 얻을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목적의식과 삶의 의미를 유지하고 삶에 대한 통제력, 자아효능감 등 긍정적인 사회심리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가 실직, 소득감소 등의 일자리 요인이 행복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실업은 행복,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건강의 수준을 낮췄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감소시켰다(e.g. Kassenboehmer & Haisken-Denew 2009; Booker & Sacker 2012). 또한 과거에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취업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이전만큼의 삶의 만족을 보이지 않았으며, 실업 기간 삶의 질이 크게 하락했다고 응답할수록 이후 삶의 만족도 역시 낮게 보고된다(Lucas et al. 2004). 이는 실업의 경험이 장기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뿐 아니라 직업의 불안정성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강력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urgard et al. 2009).

코로나-19 시기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은 코로나-19 시기에 겪은 일자리 경험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실직이나 근로시간 감축 등 고용변화가 있는 경우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이인정 2021; 전소라·김호영 2021). 팬데믹 초기 1년간의 고용상태를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실업자가 고용자에 비해 정신건강이 좋지 못했고, 코로나-19로 비롯된 지속적인 실직이 장기화하면서 실업자의 정신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Griffiths et al. 2022).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직 등의 부정적 일자리 경험은 개인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발생 후 언제 종식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겪은 일자리 변화는 더 높은 수준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상치 못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부정적 사건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개인의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e.g. Lee & Carr 2007)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가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자리 변화와 행복, 그리고 삶의 질 간의 관계는 스트레스 과정론(stress process theory)에 근거하여 논의할 수 있다(Pearlin 1989; Pearlin & Bierman 2013; Turner 2013). 스트레스 과정론은 생애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 유발사건(social stressors),

혹은 부정적 생애사건(stressful life event)이 행복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신체건강 등 여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 유발사건이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발생한다는 사실이다(Pearlin 1989). 이는 실직과 같은 부정적 생애사건이 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 사회구조적 환경과 무관하게 발생하지 않는, 즉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발생한 일자리 변동 경험도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다.

스트레스 과정론에 따르면, 부정적 생애사건과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유발되는 감정, 자아개념(self-concept) 등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earlin 1989; Turner 2013). 즉, 개인이 겪은 고난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해치고 좌절감과 낮은 통제력 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정신건강과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직 등의 일자리와 관련된 변화를 부정적 생애사건 혹은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는 정신건강과 행복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는 실직이나 실업 등 고용에 대한 부정적 ‘충격’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실업과 같은 부정적 생애사건이 개인의 행복이나 정신건강을 온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과정론은 사회심리적 자원이 부정적인 생애사건의 영향력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Pearlin & Bierman 2013). 스트레스 유발사건의 부정적 효과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자원의 수준이 낮을 때 더 커지고, 반대로 사회심리적 자원이 수준이 높으면 감소할 수 있다(Ensel & Lin 1991).

3. 사회적 관계의 효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세기 사회학자 뒤르켐(Durkheim)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뒤르켐(2019[1897])은 사회통합과 자살의 관계를 논의하였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논의의 확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 발전한 논의들은 연결망(social networks), 사회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등의 개념과 관련 연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다소간 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사회적 관계가 인간의 삶에 핵심적이며, 행복, 정신건강과 삶의 질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삶이 사회적 관계의 특성과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결망, 사회자본, 사회적 지지 등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여러 개념적 도구가 발전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개념적 도구의 정의와 이를 측정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가진 복수의 대인관계를 총칭하며 이에 따라 가족, 친구, 동료 등 여러 대상을 포함할 수 있다(이명진·손주희 2017). 더불어 사회적 관계는 관계의 양, 관계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차원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이명진·손주희 2017) 객관적 차원에서의 관계의 크기, 존재 여부나 접촉 빈도, 인지적 차원에서의 관계의 질과 만족도(Ryff 1989; Cornwell & Waite 2009; Zavaleta et al. 2017) 등 다양한 측정방식이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자원으로서의 보호요인 혹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미 여러 연구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행복과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e.g. Diener et al. 2002; Lee 2016). 더불어 긍정적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생애과정에서 겪는 부정적 생애사건이나 스트레스 유발요인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생애사건의 영향을 감소시켰고(전지혜 2010) 재정적 어려움과 실업의 영향을 줄였다(Bacikova-Sleskova et al. 2007). 또한 사회적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아동기의 트라우마 경험이 정신건강에 유발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감소되었다(송리라·이민아 2016). 이러한 연구결과는 긍정적 사회관계가 부정적 생애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 정서적 안정감, 소속감 등을 부여함으로써 부정적 사건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 고립과 관계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행복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나 교류의 양이나 질이 낮은 경우를 의미하는데(Cloutier-Fisher et al. 2011) 사회적 고립의 정의나 측정방법에 대하여 학문 간 확정된 합의는 없다(Courtin & Knapp 2017). 선행연구는 1인 가구 여부, 친구의 수 등을 측정하여 사회적 고립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기도 하지만(e.g. 한준 외 2014) 객관적 지표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고립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과도한 연결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었다(이민아 외 2018). 이에 따라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관계의 질, 즉 주관적 수준의 사회적 고립도 주요한 측정방법 중 하나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고립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Courtin & Knapp 2017). 국내 연구에서도 객관적 수준의 사회적 고립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고립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이상철·조준영 2017).

관계 스트레스나 대인갈등 등의 낮은 사회적 관계의 질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g. 우채영 외 2010; 김경호·이기홍 2016; 전소라·김호영 2021). 더불어 낮은 사회적 관계의 질은 부정적 생애사건이나 스트레스 유발사건의 영향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즉, 부정적 생애사건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을 때 더 커진다는 것이다(Dalgard et al. 2006). 물론 사회적 지지나 관계의 질이 반드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을 포함한 최근의 한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직업변화와 소득감소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이 두 요인 간 관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전소라·김호영 2021).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부정적 사건을 겪은 경우라도 사회적 지지를 얻거나 관계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는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그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 연구질문 1.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직, 노동시간 감소 등의 일자리 변화는 청년여성의 행복을 낮추는가?
- 연구질문 2. 사회적 고립, 관계스트레스 등의 낮은 사회적 관계의 질은 청년여성의 행복을 낮추는가?
- 연구질문 3. 사회적 관계의 질은 일자리 변화와 행복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갖는가? 즉, 일자리의 변화가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수준은 사회적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지는가?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제8차 여성·가족패널조사

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 1차 조사 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를 1차 표본조사단위 추출을 위한 기본 표집틀로, 선정된 조사구 내의 가구를 계통추출로 선정한 가구를 2차 표본추출단위로 선정하여 수집한 자료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일자리 경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2020년도에 수집된 8차 조사만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2020년도에 수집된 8차 조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여성의 삶 변화’ 영역이 추가되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경험이 조사되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또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대상을 19~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청년여성¹⁾으로 한정하였고($N=1,405$), 이 중 일자리 경험 문항의 무응답($N=11$), 가구소득 변수의 무응답($N=3$)과 일자리의 변화 없이 지속적 비취업상태였던 응답자 중에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응답자($N=387$)를 제외하였다.²⁾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004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변수측정

1) 종속변수: 행복

행복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안녕 수준으로,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행(1점)부터 매우 행복(10점) 중 해당되는 점수에 표시하여 주십시오.’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값이 클수록 행복의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행복은 자신의 삶 전체(life-as-a-whole)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정의되므로(Kalmijin & Arends 2010) 본 연구에서 행복은 단일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응답을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삶의 여러 영역을 구분한 후 각 영역에 대한 만족의 평균이나 총합을 활용하는 방식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 특정 영역의 영향력에 좌우되어 오히려 총체적 수준의 행복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논의도 존재한다(Veenhoven 1996). 본 연구에서도 사용된 행복에 대한

1) 청년의 연령기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15~29세) 등의 법령,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수당 대상자 기준(18~34세) 등 기준에 따라 상이하고 실제 청년층에 대한 학술적 연구들도 동일한 연령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최근 청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39세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생애과정에서 생물학적 연대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임을 함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39세를 기준으로 한 최근 연구를 반영하여(김은지 외 2020) 39세까지를 청년층으로 규정하였다.

2)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응답자를 지속적 비취업상태 범주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더라도 분석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음을 밝힌다.

단일문항 측정은 신뢰성을 인정받아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e.g. Ryan & Dziurawiec 2001).

2) 독립변수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는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일자리와 관련하여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범주를 총 여섯 가지의 경우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하던 일을 그만둠 (2)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음 (3)하던 일의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음 (4)변화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함 (5)계속 비취업 상태였음 (6)기타. 제8차 여성·가족패널조사에 활용된 실제 조사문항의 응답범주는 여덟 가지였으나 응답범주 내 응답자의 수가 적은 경우 통계적 검정력(statistical power)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여섯 가지의 경우로 재조정하였다. ‘하던 일의 노동시간이 크게 감소되었다’와 ‘하던 일의 보수 또는 소득이 크게 감소되었다’의 응답을 하나의 범주로 구성하였고, ‘재택근무, 시차근무 등의 유연근무 비중이 증가’한 경우와 ‘기타’ 범주를 최종적으로 ‘기타’ 범주로 조정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변화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한 여성들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두 가지 변수는 사회적 고립과 관계 스트레스이다. 사회적 고립은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문항으로, 관계 스트레스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두 문항의 응답범주 모두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로 구성되어 있으나 역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값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1인 가구 여부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측정되었다. 연령은 만나이로 측정된 연속변수이며 교육수준도 ‘무학(1)’에서 ‘대학원 이상(7)’의 범위를 갖는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³⁾ 가구소득의 경우 모든 경우에 1을 더한 후 자연로그화하였다. 1인 가구 여부는 이분변수로 측정되었다(1인 가구=1).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1)’에서 ‘매우 나쁘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역코딩하여 점수값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상태로 조정하였다.

3) 분석대상을 19세-39세의 청년여성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교육수준 중 최저값은 중졸(3)이었다.

3. 분석방법

주요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이며 두 가지 단계의 분석과정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위계적 방식으로 변수를 추가하여 일자리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총 세 가지의 모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모형 1에는 코로나-19 시기의 일자리 경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 모형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투입하고 모형 3에는 사회적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두 가지 변수(사회적 고립과 관계 스트레스)를 추가하였다. 위계적 방식으로 변수를 투입하면서 일자리 경험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분석단계는 일자리 경험과 사회적 관계의 질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일자리 경험과 사회적 고립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후 일자리 경험과 관계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에는 8차년도 응답자 개인에 대한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가중치는 2020년 만 19세 이상 여성의 추계인구 수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 간 상관관계

<표 1>은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한 결과이다. 19세에서 39세의 청년여성만을 분석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평균연령은 27.23세였으며 교육수준의 평균값은 5.25로 표본에 포함된 청년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표본 내에 4.2%였다.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경험을 살펴보면, 일자리에 변화가 없었던 응답자는 전체의 56.6%로, 코로나-19 기간에도 이전 시기부터 해오던 일을 계속했다고 응답하였다. 하던 일은 그만둔 경우는 4.4%, 노동시간이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7.6%였으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경우는 1.8%였다. 이 세 가지의 경우를 합하면 약 13.8%의 청년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경험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4)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자료(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중 20~39세의 청년여성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32%이며 전체 20~39세 내국인 청년여성인구 수 대비 청년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은 약 16.1%였다. 표본 내에 1인 가구가 과소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본 수(명)	평균/비율	표준편차
행복	1,004	6.711	1.239
연령	1,004	27.230	4.847
교육수준	1,004	5.252	0.890
가구소득(로그)	1,004	8.602	0.815
1인 가구 여부	1,004	0.042	
주관적 건강상태	1,004	4.003	0.715
일자리 경험			
하던 일을 그만둠	1,004	0.044	
새로운 일자리 찾음	1,004	0.018	
노동시간 또는 소득 감소함	1,004	0.076	
변화 없음	1,004	0.566	
지속적 비취업 상태	1,004	0.283	
기타	1,004	0.014	
사회적 관계의 질			
사회적 고립	1,004	1.825	0.681
관계 스트레스	1,004	2.266	0.714

주) 이분변수의 경우 표준편차를 제시하지 않음.

<표 2> 연속변수 간 Pearson 상관계수

	(1)	(2)	(3)	(4)	(5)	(6)	(7)
행복	1.000						
연령	0.001	1.000					
교육수준	0.164***	0.348***	1.000				
가구소득	0.173***	-0.175***	0.094**	1.000			
주관적 건강상태	0.305***	-0.095**	0.101**	0.192***	1.000		
사회적 고립	-0.138***	0.065*	0.004	-0.078*	-0.216***	1.000	
관계 스트레스	-0.073*	0.099**	0.025	-0.020	-0.060 ⁺	0.270***	1.000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2>는 주요 연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요약한 결과이다. <표 2>에 따르면, 행복은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의 관계를 가졌다. 반면에 행복은 사회적 고립과 관계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다.

2. 코로나-19 시기의 일자리 경험, 사회적 관계와 행복

<표 3>은 분석대상자인 청년여성의 행복에 미치는 일자리 경험의 영향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 1에는 일자리 경험변수만을 투입하였고, 모형 2와 3에는 각각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와 사회적 관계의 질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유형의 일자리 경험변수가 모든 분석모형에서 유의하였다. 일자리에 변화가 없었던 여성에 비해 하던 일을 그만둔 청년여성은 행복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았다. 지속적 비취업상태의 여성도 일자리 변화가 없었던 집단에 비해 행복의 수준이 낮았다. 모형 3의 사회적 관계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았으나 관계 스트레스는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행복의 수준은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모형 2와 모형 3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회적 관계의 질이 매개효과를 가질 가능성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에서 사회적 관계의 질 변수를 투입한 후에도 두 가지 유형의 일자리 경험변수(하던 일을 그만둠, 지속적 비취업상태)의 계수와 유의도는 모형 2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의 변화인 하던 일을 그만둔 경험이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것이 다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 가구소득, 1인 가구 여부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그 값이 높아질수록 행복의 수준도 높아졌다. 1인 가구 청년여성은 누군가와 함께 사는 청년여성에 비해 행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코로나-19 시기 일자리 변화경험, 사회적 관계의 질과 행복의 관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일자리 경험 (준거집단=변화 없음)			
하던 일을 그만둠	-1.048** (0.382)	-0.829* (0.337)	-0.903** (0.312)
새로운 일자리 찾음	-0.335 (0.241)	-0.182 (0.309)	-0.169 (0.270)
노동시간 또는 소득 감소함	-0.152 (0.214)	-0.155 (0.201)	-0.121 (0.198)
지속적 비취업 상태	-0.752*** (0.141)	-0.491** (0.145)	-0.525** (0.147)
기타	0.440 (0.522)	0.367 (0.485)	0.394 (0.443)
연령		0.001 (0.012)	0.002 (0.012)
교육수준		0.212** (0.073)	0.207** (0.074)
가구소득(로그)		0.170* (0.068)	0.181** (0.067)
1인 가구 여부(1인 가구=1)		0.375+ (0.201)	0.423* (0.192)
주관적 건강상태		0.448*** (0.071)	0.422*** (0.076)
사회적 관계의 질			
사회적 고립			-0.038 (0.087)
관계 스트레스			-0.255** (0.079)
상수	6.943*** (0.071)	2.412** (0.749)	3.069*** (0.730)
표본 수	1004	1004	1004
F	7.100***	15.650***	15.940***
R ²	0.099	0.227	0.252

주)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가 제시되었으며 괄호 안의 숫자가 표준오차임.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3. 코로나-19 시기의 일자리 경험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

<표 4>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경험과 사회적 관계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다. 모형 1에서는 일자리 경험과 사회적 고립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고 모형 2에는 관계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일자리 경험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경험 중 기타의 경우와 사회적 고립 간의 상호작용 변수만이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모형 2의 관계 스트레스의 경우 하던 일을 그만둔 경우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경우와 각각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 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응답자가 갖는 관계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4> 코로나-19 시기 일자리 변화경험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

	모형 1	모형 2
일자리 경험 (준거집단=변화 없음)		
하던 일을 그만둔	0.396 (0.732)	1.289 (0.993)
새로운 일자리 찾음	-0.031 (0.913)	1.080 ⁺ (0.581)
노동시간 또는 소득 감소함	0.188 (0.428)	-0.294 (0.749)
지속적 비취업 상태	-0.612 ⁺ (0.328)	-1.040 [*] (0.408)
기타	1.877 [*] (0.815)	1.528 ^{**} (0.574)
연령	0.002 (0.012)	0.001 (0.012)
교육수준	0.197 ^{**} (0.075)	0.208 ^{**} (0.073)
가구소득(로그)	0.181 ^{**} (0.067)	0.172 [*] (0.067)
1인 가구 여부(1인 가구=1)	0.406 [*] (0.189)	0.461 [*] (0.182)
주관적 건강상태	0.418 ^{***} (0.076)	0.417 ^{***} (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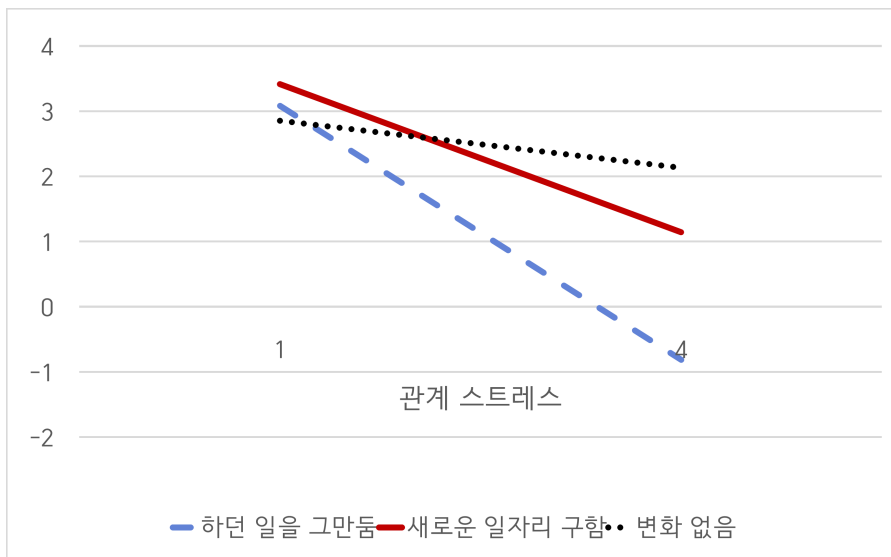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의 질		
사회적 고립	0.059 (0.102)	0.009 (0.077)
관계 스트레스	-0.236** (0.077)	-0.241* (0.093)
상호작용		
하던 일을 그만둠 * 사회적 고립	-0.677 (0.422)	
새로운 일자리 찾음 * 사회적 고립	-0.082 (0.442)	
노동시간 또는 소득 감소함 * 사회적 고립	-0.171 (0.215)	
지속적 비취업 상태 * 사회적 고립	0.042 (0.173)	
기타 * 사회적 고립	-0.824+ (0.434)	
하던 일을 그만둠 * 관계 스트레스		-1.058* (0.450)
새로운 일자리 찾음 * 관계 스트레스		-0.517* (0.212)
노동시간 또는 소득 감소함 * 관계 스트레스		0.063 (0.297)
지속적 비취업 상태 * 관계 스트레스		0.231 (0.162)
기타 * 관계 스트레스		-0.467 (0.358)
상수	2.936*** (0.714)	3.091*** (0.737)
표본 수	1,004	1,004
F	13.510***	18.800***
R ²	0.270	0.282

주)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가 제시되었으며 괄호 안의 숫자가 표준오차임.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1>은 일자리 경험과 관계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Y축은 <표 4>의 모형 2의 결과에서 상수, 일자리 경험, 관계 스트레스 및 상호작용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경우 0값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행복의

예측값이다. 그러므로 <그림 1>의 예측값은 일자리 경험과 관계 스트레스의 조건에 따른 행복의 상대적 차이만을 보여준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의 일자리 변동 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관계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자리의 변화가 없었던 응답자의 경우 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행복의 수준이 감소하였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경우는 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행복의 감소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관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라 행복의 수준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집단은 하던 일을 그만둔 경우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여성들은 관계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 변동 경험, 특히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관계 스트레스가 그러한 경험의 악영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경우라도 관계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경우, 즉 사회적 관계의 질이 높은 경우는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일자리 변화경험과 관계 스트레스에 따른 행복의 수준

V.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가 청년여성들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하던 일을 그만둔 여성과 지속적으로 비취업상태였던 여성은 일자리의 변화가 없었던 여성에 비해 행복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g. 이인정 2021). 코로나로 인한 실직은 생애과정에서 겪는 부정적 생애사건이자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좌절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유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 과정론(stress process theory)은 부정적 생애사건이 자아상(self-concept)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이나 행복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Pearlin 1989; Turner 2013). 실직 등 고용과 관련된 부정적 ‘충격’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심리적, 육체적 고통, 개인의 가치 저평가 등(Brand 2015)을 유발하여 삶의 질과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의 질 변수 중 사회적 고립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관계 스트레스는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고립과 행복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한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고립과 관계 스트레스가 포착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과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어, 사회적 지지, 특히 정서적 지지의 존재여부에 대한 문항이며(Zavaleta et al. 2017) 관계 스트레스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어 사회적 지지 혹은 사회적 관계의 질적 측면에 더 가깝다.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이 관계에서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과중하게 느낄 경우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서적 관계의 존재 여부보다 관계의 질적, 인지적 측면이 개인의 삶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그럼에도 사회적 고립이 청년여성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선행연구와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분석결과에서 1인 가구 청년여성의 행복이 그렇지 않은 여성의 행복수준보다 더 높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사회적 고립과 1인 가구가 청년여성의 삶에 차지하는 맥락이 남성이나 다른 연령집단과는 다를 가능성도 있다. 물론 표본 내 1인 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과 해석이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청년여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일자리 경험과 행복의 관계에 사회적 관계의 질 중 관계 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자리 변화가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변화가 없었던 응답자의 경우 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행복의 수준이 감소하였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다. 이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경우는 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행복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관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라 행복의 수준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집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던 일을 그만 둔 경우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이 관계 스트레스에 의해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경우라도 관계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경우, 즉 사회적 관계의 질이 높은 경우는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 스트레스의 효과는 부정적 생애사건이 정신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관계의 질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e.g. 송리라·이민아 2016). 또한 스트레스 유발사건의 영향이 개인이 가진 사회심리적 자원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는 스트레스 과정론과도 일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Pearlin & Bierman 2013). 관계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자원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함의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일자리의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 스트레스도 증첩된다면 청년여성이 겪는 고통은 더 증폭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가진 복수의 대인관계를 총칭하며 이에 따라 가족, 친구, 동료 등 여러 대상을 포함할 수 있다(이명진·손주희 2017). 본 연구에서 측정된 관계 스트레스도 특정 대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친구 등 여러 사적

관계를 포괄한 것이라 판단된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청년여성들이 겪은 부정적 일자리 경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청년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에 사회적 관계의 질이 더욱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이 더 외로움을 느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Bu et al. 2020)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교류의 제한은 청년여성들의 사회적 관계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실직, 실직 후 재취업 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행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사회적 관계의 질적 측면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횡단면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자리 경험의 변화가 유발하는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소득감소 등의 부정적 변화를 겪은 여성들이 그 이후에 일자리 관련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러한 변화가 행복이나 삶의 질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갖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주요 독립변수인 일자리 변화의 측정과 관련된 한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일자리 변화 유형 중 해당 응답자의 수가 적은 경우는 통계적 검정력(statistical power)이 낮아 실제로는 행복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경우는 전체 표본 중 1.8%에 그쳐 행복에 미치는 주 효과(main effect)가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응답자의 수가 적은 경우 통계적 검정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과(Ferraro & Wilmoth 2000) 재취업한 경우라도 과거에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Lucas et al. 2004)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후 구직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행복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삶의 개별 영역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측정될 필요도 있다. 앞으로 가족, 건강,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활용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적 관계 변수도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합성측정 방식을 활용한 연구들이 필요하다(e.g. Cornwell & Waite 2009; Lee 2016).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의 변화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자리 변화에 비해 행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가 이전 시기의 변화에 비해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지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의 변화가 청년여성의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여기에 사회적 관계의 질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검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겪은 일자리의 부정적 변화는 개인들에게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계층 등 여러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발생했다. 이러한 불평등에 낮은 사회적 관계의 질이 가중된다면 행복과 삶의 질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청년여성의 행복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의 질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2.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 김경호·이기홍. 2016. “청소년의 사회관계, 스트레스 및 일탈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구학》 39(3): 83-105.
- 김은지·송효진·배호중·선보영·최진희·황정미. 2020.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여성정책연구원.
- 뒤르켐, 에밀. 2019[1897]. 《자살론》. 황보종우 옮김. 청아출판사.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
- 보건복지부. 2022.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 송리라·이민아. 2016.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과 성인기 우울의 관계: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 《한국인구학》 39(2): 1-24.
- 우채영·박아청·정현희. 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9-38.
- 이명진·손주희. 2017.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 측정: 지수 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8(1): 97-122.
- 이민아·신철균·강정환. 2018.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가? 친구연결망의 크기가 중학생의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9(3): 627-649.
- 이상철·조준영. 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연

- 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61-86.
- 이인정. 2021. “COVID-19 위기상황이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미친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9): 205-214.
- 전소라·김호영. 2021. “장기화된 COVID-19 에서 경험한 스트레스가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Stress》 29(4): 207-219.
- 전지혜. 2010.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우울감의 관계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5(2): 51-80.
-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의 사회동향 2022》.
- 통계청. 2019. 《2019년 사회조사》.
- 통계청. 2021. 《인구총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2020. “2020년 노동시장 평가 및 2021년 전망.” 《월간 노동리뷰》 189: 41-5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여성가족패널 1~8차 웨이브 User's Guide》.
- 한준·김석호·하상웅·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1-24.
- 함선유·이원진·김지원. 2021.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선웅. 2020. “코로나 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산업노동연구》 26(3): 5-34.
- Albanesi, S. and J. Kim. 2021. “Effects of the COVID-19 Recession on the US Labor Market: Occupation, Family, and Gend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5(3): 3-24.
- Bacikova-Sleskova, M., J.P. van Dijk, A.M. Geckova, I. Nagyova, F. Salonna, S.A. Reijneveld, and J.W. Groothoff. 2007. “The Impact of Unemployment on School Leavers’ Perception of Health: Mediating Effect of Financial Situation and Social Cont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2(3): 180-187.
- Banerjee, D. and M. Rai. 2020. “Social Isolation in Covid-19: The Impact of Lonel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6(6): 525-527.
- Bluedorn, J., F. Caselli, N.J. Hansen, I. Shibata, and M.M. Tavares. 2022. “Gender and Employment in the COVID-19 Recession: Cross-country Evidence on ‘She-cessions’.” *Labour Economics* 102308.
- Booker, C.L. and A. Sacker. 2012.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actions to Multiple Unemployment Events: Adaptation or Sensitisation?”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6(9): 832-838.
- Brand, J.E. 2015. “The Far-reaching Impact of Job Loss and Unemployment.” *Annual*

- Review of Sociology* 41: 359-375.
- Bu, F., A. Steptoe, and D. Fancourt. 2020. "Who is Lonely in Lockdown? Cross-cohort Analyses of Predictors of Lonelines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ublic Health* 186: 31-34.
- Burgard, S.A., J.E. Brand, and J.S. House. 2009. "Perceived Job Insecurity and Worker Health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69(5): 777-785.
- Cloutier-Fisher, D., K. Kobayashi, and A. Smith. 2011. "The Subjective Dimension of Social Isolation: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Older Adults' Experiences in Small Social Support Networks." *Journal of Aging Studies* 25(4): 407-414.
- Cornwell, E. and L. Waite. 2009.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1): 31-48.
- Courtin, E. and M. Knapp, 2017.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Health in Old Age: A Scoping Review."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5(3): 799-812.
- Dalgard, O.S., C. Dowrick, V. Lehtinen, J.L. Vazquez-Barquero, P. Casey, G. Wilkinson, J.L. Ayuso-Mateos, H. Page, and G. Dunn. 2006. "Negative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1(6): 444-451.
- Diener, E. and M.E. Seligman.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1): 81-84.
- Ensel, W.M. and N. Lin. 1991. "The Life Stress Paradig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4): 321-341.
- Ferraro, K.F. and J.M. Wilmoth. 2000. "Measuring Morbidity: Disease Counts, Binary Variables, and Statistical Power."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5 (3): 173-189.
- Flor, L.S., J. Friedman, C.N. Spencer, J. Cagney, A. Arrieta, M.E. Herbert, C. Stein, E.C. Mullany, J. Honm, V. Patwardhan, R.M. Barber, J.k. Collins, S.I. Hay, S.S. Lim, R. Lozano, A.H. Mokdad, J.L. Murraay, R.C. Reiner, J.D. Sorensen, A. Haakenstad, D. Pigott, and E. Gakidou. 2022. "Quantifying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Gender Equality on Health, Social, and Economic Indicators: A Comprehensive Review of Data from March, 2020, to September, 2021." *The Lancet* 399(10344): 2381-2397.
- Griffiths, D., L. Sheehan, C. van Vreden, D. Petrie, P. Whiteford, M.R. Sim, and A. Collie. 2022. "Changes in Work and Health of Australia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ongitudinal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22(1): 1-9.

- Ham, S. 2021. “Explaining Gender Gaps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eminist Economics* 27(1-2): 133-151.
- Hoffart, A., S.U. Johnson, and O.V. Ebrahimi. 2020. “Loneliness and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isk Factors and Associations with Psychopathology.” *Frontiers in Psychiatry* 11: 589127.
- ILO. 2020.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Switzerl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eneva.
- ILO. 2021. “An Update on the Youth Labour Market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ILO Statistical Brief June 2021*.
- Kalmijin, W.M. and L.R. Arends. 2010. “Measures of Inequality: Application to Happiness in Nat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9(1): 147-162.
- Kassenboehmer, S.C. and J.P. Haisken-Denew. 2009. “You’re Fired! The Causal Negative Effect of Entry Unemployment on Life Satisfaction.” *The Economic Journal* 119(536): 448-462.
- Lee, M. 2016. “Social Relationships,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in Korea: Examining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in Men and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2(1): 67-75.
- Lee, M. and D. Carr. 2007. “Does the Context of Spousal Loss Affect the Physical Functioning of Older Widowed Persons? A Longitudinal Analysis.” *Research on Aging* 29(5): 457-487.
- Lucas, R.E., A.E. Clark, Y. Georgellis, and E. Diener. 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 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1): 8-13
- OECD. 2020.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Issue 1: Preliminary Version OECD Library.
- Pearlin, L.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1-256
- Pearlin, L.I. and A. Bierman. 2013.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into the Stress Process.” pp. 325-340 in C.S. Aneshensel et al.(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2nd Ed.). Springer.
- Pieh, C., S. Budimir, J. Delgadillo, M. Barkham, J.R. Fontaine, and T. Probst. 2021. “Mental Health during COVID-19 Lockdown in the United Kingdom.” *Psychosomatic Medicine* 83(4): 328-337.
- Radu, B.M and M. Balan. 2022. “The Covid-19 Pandemic: Labour Market Implications for Youth Women.” *Internal Auditing and Risk Management* 66(2): 9-19.
- Ryan, L. and S. Dziurawiec. 2001. “Materialism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atisfaction.”

-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 185-197.
- Ryff, C.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eligman, M.E.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Simon and Schuster.
- Turner, R.J. 2013. "Understanding Health Disparities: The Relevance of the Stress Process Model." *Society and Mental Health* 3(3): 170-186.
- Veenhoven, R. 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 1-46.
- World Bank. 2020. *Global Economic Prospects*. Washington. DC: World Bank.
- Zavaleta, D., K. Samuel, and C.T. Mills. 2017. "Measures of Social Isolation." *Social Indicators*.

<접수 2023.06.13; 수정 2023.07.10; 게재확정 2023.07.10>

Work-related Experiences and Happiness of Young Adult Wom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Eunju Ji

(Chung-Ang University)

Min-Ah Le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work-related experien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of young adult women in Korea.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2020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Young adult women who are never married and aged 19 to 39 were included for the analyses. Work-related experience during the pandemic were categorized into six cases as follows: (1) job loss (2) experienced job loss, but found a new job (3) substantially reduced working hours or income (4) sustained same job/work (5) no job even before the pandemic, and (6) others.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was measured by two variables: (1) social isolation, and (2) relationship stres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women who lost job due to the pandemic and did not have a job even before the pandemic ha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happiness than those who sustained their job.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two types of work-related experiences and relationship stress. A higher level of relationship stress exacerbated the harmful effects of the negative work-related experiences.

Key words: COVID-19, happiness, negative experiences in employment, social relationships, young adult women